



이준걸 군

선진축산(주)
이원복 사장 장남
서울대 수석 합격

선진축산(주)의 이원복 사장 장남인 이준걸군이 서울대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축산업계에는 물론 전국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준걸 군은 대입 학력고사에서 332 점을 얻어 전체공동 수석을 차지한 후 서울대 물리학과를 지망, 학력고사·내신·논술성적을 합친 최종 전형에서 550.53을 얻어 단독 수석합격의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이원복 사장의 1남 2녀중 외아들이인 이준걸 군은 홍대 사대부국, 경성중, 경성고를 거치면서 독서 서클과 보이 스카우트에 들어 활동하는 등 대단히 쾌활한 성격이라고.

이원복 사장은 아들이 서울대에 수석 합격한데 대해 「준걸이가 어려서부터 혼자서도 무슨 일이든지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더니 수석의 영광을 따냈다」며 대견해 했다.

이준걸 군은 물리학과를 지원한데 대해 물리학을 처음 생각한 것은 중3 겨울이었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고2 여름방학때 과학기술처에서 주관한 8박 9일간의 과학캠프에 갔다 온 후」라고 밝히고 「대학에 진학하면 서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면서 열심히 노력해 노벨상에도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이 군은 좋은 성적을 내 수석합격한 비결을 묻자 「공부할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쉴 때는 편히 푹 쉬었다」고 밝히고 「교과서 위주로 예습·복습을 충분히 해가며 공부한 것이 수석의 영광을 차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군은 공부를 하면서 틈틈히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머리를 식혔다고 하는데 취미는 중 1때부터 시작한 플루트 연주라고.